그릿 감상문

52130027 중국어과 심미연

자기 계발서를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희망을 주는 내용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희망적인 내용을 좋아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읽지 않았던 이유는 전문서적만큼 쉽게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책의 종류마다 접근해야 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동의한다. 그리고 사람마다 관심분야가 달라서 아무리 독서광 이라고 해도 잘 읽히지 않는 분야가 한 두 개쯤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김연아 선수가 생각났다. 김연아 선수가 주목 받기 전 까지만 해도 나는 운동선수는커녕 올림픽조차도 관심이 없었다. 내가 처음 보게 된 김연아 선수의 경기는 2010년 벤쿠버 올림픽 때 제임스 본드 메들리라는 곡으로 한 쇼트경기였는데, 정말 멋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피겨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스케이트를 타 봤기 때문에 저런 속도로, 저런 기교를 얼음판 위에서 벌인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는데, 표정이며 음악에 맞춰 짠 멋있는 안무까지 생각하니 완벽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다른 선수를 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고 나니까 다른 선수의 경기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후 김연아 선수의 완벽한 팬이 되었고, 인터뷰와 저서를 찾아보던 중 그녀는 그녀가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완벽히 천재일거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스스로가 완전한 노력형일고 말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주니어 대회에 나가 상을 탄 무대를 보고, 연습하다가 얼음판 위에서 넘어지는 장면들과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과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성공에는 집안의 재력과 훌륭한 코치 등의 환경적인 요소들과 개인의 끈기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정신력이라면 김연아 선수는 어떤 분야를 선택했더라도 성공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는 게 내 답이고, 아마도 나는 영원히 죽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할 것 같다. 24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하고 싶은 것들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바뀌었고, 나를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들과 가족들조차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해도 시큰둥하다, 조만간 또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번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결국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하고 넘어가버렸다.

나도 물론 노력이라는 단어를 믿는다. 그 노력이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해도 되고, 나를 위해서라고 해도 하면 좋은 것이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노력을 하려는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내 생각에 이것은 끈기가 없어서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 나는 왜 끈기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끈기를 기를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6장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 에서 의외로 쉽게 찾았다. 책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문제였는데, 깨달았고, 재미있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쓴 것일까? 분명 어려운 외국어였을 텐데 말이다. 아무튼 나를 깨닫게 한 말은 ‘열정이 계시처럼 단번에 찾아오지 않아서 짜증났는가?’였다. 맞다. 나는 지금껏 왜 나에게는 ‘한번에’, ‘빨리’ 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해 화가 나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노력에 관한 연구를 하신 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공통적으로 든 생각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으로 적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자, 지구에 사는 인간들 중에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 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더욱 부끄럽게 만든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상대를 찾을 때 겪는 문제인데, 모든 면에서 최고인 나와 동갑인 상대를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나조차도 내가 바라는 상대가 되지 못하면서 완벽한 상대가 나를 좋아해주기를 바라는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완벽한 사람을 찾기 전에 나부터 나의 이상형에 가까워져야겠다.

그릿을 읽고 깨달은 것이 꽤 있는데, 그 중 내 자신부터 내 이상형이 되자는 것과 내 관심사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것들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4학년의 신분이다 보니 직업을 정하는 것에 좀 과도할 정도로 집착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러한 압박에 사로잡혀있다 보니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내 관심사가 오래 가지 못하고 계속 바뀌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던 것 같다. 여태껏 성공한 인물들이 어렸을 때의 한 번의 깨달음으로 죽을 때까지 그 분야에서 연구 혹은 작품을 남기다가 죽은 것에 정신 팔려서 나까지 꼭 그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한 분야로 계속 가는 사람이 없고,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모든 분야가 조금씩은 연결되어 있어서 아예 다른 분야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자, 그러나 꾸준히 내 흥미를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혹은 내 흥미가 폭발하였을 때 능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해 꾸준히 노력해보자.